'신장 팔아' 아이폰 산 청년의 후회

8년 전 자신의 장기를 밀매한 뒤 아이폰을 구매했던 중국 청년의 최근 생활상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011년 중국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신장 팔아 아이폰 구매한 고등학생 왕 군' 사건 이후 약 8년이 흐른 최근 그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됐기 때문.

2011년 당시 중국 안웨이성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의 왕 강 군(사진)은 최신형 아이폰4s를 손에 넣기 위해 2만 2,000위안(약 3,500달러)을 받고 자신의 신장 하나를 밀매 일당에게 팔았다. 당시 왕 군의 체격은 키 190㎝, 체중 81㎏으로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약 8년이 흐른 최근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왕 군은 급격히 악화된 신장 기능 약화 등의 문제로 줄곧 종합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아오고 있는 상태다. 왕 군의 병원 진료비와 투석 비용 등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왕 군의 아버지 왕 창 씨는 "앞날이 창창했던 아들이 한 때의 허영심과 충동심을 자제하지 못하고 남은 인생을 망쳤다." 고 말했다. 왕창 씨는 "아들의 사건에 대해 현지 언론의 집요한 취재 덕분에 사건 브로커와 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면서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남은 인생을 잃었다. 가족들은 당시 사건 이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황폐화된 삶을 살고 있다." 고 전했다.

왕 군은 현재 시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해 총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상태다. 또, 하나 남은 그의 신장 기능에 장애 판정을 받은 후 줄곧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왕 군은 "수술 시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를 적출하면서 심각한 감염을 얻었다." 면서 "처음 아이폰을 손에 쥐었을 당시만해도 두 개 중 하나의 신장을 팔겠다는 결정에 대해 제법 '남는 장사' 였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뒤늦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됐다." 고 말했다. 또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때의 어리석은 선택을 지우고 싶다." 며 고개를 떨궜다.

음주 운전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최후

대만에서 한 음주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고자 배수로에 숨었다가 붙잡혔다.

지난 5일 오후 2시쯤 대만 타이중시 탄쯔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주행하던 한 대형 트레일러의 운전기사 왕 씨(54)는 경찰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심지어 왕 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로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오자 차를 급정거한 뒤 후진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는 파손됐지만, 타고 있던 경찰관은 재빨리 몸을 피해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관이 트레일러 후방 타이어를 향해 총 4발을 쏘며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때 트레일러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은 이 남성의 차량에 타고 남성과 함께 트레일러를 뒤쫓았다. 경찰관을 도운 이 남성에 따르면, 도주한 왕 씨는 50m 정도 앞에 있던 공터에 트레일러를 세우고 나서 차 안에서 개 1마리를 품에 안고 담배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도주했다.

그런데 얼마 뒤 왕 씨는 도주하다가 지쳤는지 품에 안고 있던 개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모두 던져버렸고 마지막에는 인근 배수로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 하지만 왕 씨는 자신을 뒤쫓던 경찰관과 남성에 의해 발견돼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 당시 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공장에서 맥주 3병을 마셨기에 경찰에 잡히는 것이 무서워 도망쳤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왕 씨를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고래 뱃속을 여행한 잠수부

'고래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 분기공으로 뿜어져 나와 살았다.' 전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중촬영 잠수부 레이너 쉼프(51)는 지난 2월 정어리떼를 촬영하기 위해 동료들과 바다를 찾았다. 레이너는 15년간 펭귄, 물개, 돌고래, 상어 등 많은 해양동물을 촬영한 베테랑 감독이다. 팀원들과 함께 케이프타운 동쪽에 위치한 포트엘리자베스 항구를 통해 바다로 들어간 레이너는 촬영 중간 갑자기 큰 일렁임을 느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해수면이 요동을 치더니 엉덩이에 압박감이 느껴졌고 곧 사방이 어두컴컴해졌다." 고 밝혔다.

레이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른 거대한 고래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팀원들은 공포에 질리고 말았다. 레이너의 팀원 하인즈 토퍼저는 "주변의 바닷물이 심하게 뒤틀리더니 곧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레이너를 집어삼켰다.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고 말했다.

레이너를 집어삼킨 고래는 '브라이드 고래' 로 몸길이는 최대 14m에 이른다. 대개 1~2마리씩 소규모로 헤엄치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에 주로 서식한다. 분기공에서 높이 4~5m로 공기를 뿜어낸다. 레이너를 삼킨 고래는 좋아하는 먹잇감인 정어리를 쫓다 마침 정어리 촬영팀과 마주치면서 레이너까지 집어삼킨 것이다.

레이너는 "고래 뱃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곧 빠져나갈 길이 열릴 거라는 걸 직감했다." 고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고래는 얼마 후 분기공에서 물을 뿜어냈고 레이너는 바닷물에 휩쓸려 기적적으로 탈출했다. 팀원 하인즈는 "레이너가 고래 입속으로 빨려들어간 뒤 우리는 보트로 돌아와 계속 고래를 주시했다. 다행히 레이너는 고래가 뿜어내는 물 사이로 탈출했고 보트로 헤엄쳐 돌아왔다." 고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